

# Japan Weekly Digest

2011. 4. 30. ~ 5. 6.

금주의 이슈

- 엔화 급등, 달러당 79엔을 기록
- 대지진 복구 추경예산안 4조엔 국회통과
- 원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 검토

경제산업성 동향

- 신성장전략 재검토, 원자력 등 에너지정책 수정
- 원전사고의 소문피해 해소를 위한 설명회개최
- ASEAN+3 회의, 금융위기 예방기능 강화 합의

일본기업전략

- 엘피다, 25나노 D램 개발 7월부터 양산
- 르네사스반도체 피해로 휴대폰·가전에 악영향
- 신일본체절, 스미토모의 도요타강판 대체생산

보고서 리뷰

- 중국 광동성 동관시, 지진 피해 일본기업 긴급지원



**사단 한일경제협회**

**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**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 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 
(Tel.02-3014-9888)

## □ 금주의 이슈

### ○ 엔화 급등, 달러당 79엔대 기록

- 엔화 가격이 5일 런던시장에서 장중 한 때 달러당 79.50엔을 기록
- 지난 3월 17일 기록했던 전후 최고치(달러당 76.25엔)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, 대지진으로 타격을 입은 일본기업들의 어려움이 확대되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
- 엔화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4일 발표된 **미국의 고용관련 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하회**하여 투자자들이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들였다는 전문가 분석
-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 중인 노다 재무상은 "개입에 나섰던 3월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"고 언급하고 바로 **개입할 의사가 없음**을 시사

### ○ 대지진 복구를 위한 추경예산안 4조엔 국회 통과

- 日정부는 2일, 대지진 복구를 위해 제출한 4조 153억엔 규모의 1차 추경예산안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발표
- 추경예산은 도로·항만·농지 등을 복구하기 위한 공공사업비 1조2019억엔과 건물 잔해 처리 비용 3519억엔, 임시주택건설비 3626억엔 등이 포함
- \* **95년 한신대지진 1차 추경 1조 223억엔의 4배 규모**
- 추경예산의 재원은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 기초연금 국고부담금 2조4900억엔 전용, 자녀수당 증액 유보, 고속도로 무료통행 예산 동결, 예비비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

### ○ 원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 검토

- 日정부와 민주당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배상과 관련 도쿄전력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
- 日언론에 의하면, 도쿄전력이 수 조엔에 달하는 사고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현재 그러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구조조정을 전제로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
- 정부는 도쿄전력 뿐 아니라 배상에 참여하는 다른 전력회사의 전기요금도 인상할 방침.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여론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

## □ 경제산업성 동향

### ○ 신성장전략 재검토, 원자력 등 에너지정책 수정

- 정부는 4일, 대지진 영향으로 2010년 6월에 책정했던 신성장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
- 원전의 해외수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프라수출 전략이었으나, 후쿠시마 원전사고 영향으로 에너지정책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. TPP협상 참가 여부 결정 등 5월 중순에 기본지침을 발표할 예정
- 일례로 2020년 재생가능 에너지시장을 10조엔까지 확대시킨다는 목표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조정. **태양광·풍력발전, 축전지, 지열 등 재생가능에너지 도입에 주력하고,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전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**

### ○ 원전사고의 소문피해 해소를 위한 설명회개최

- 경제산업성은 원전 사고로 떠돌고 있는 공업제품에 관한 소문 피해를 차단시키기 위해 국내외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
- 원전 사고에 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**소문으로 인한 일본제품이 따돌림 당하지 않도록 피해를 해소시키려는 전략**
- 한국에서는 3일, 주한일본대사관이 경제4단체를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, 일본에서는 식품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

### ○ ASEAN+ 3 회의, 금융위기 예방기능 강화 합의

- ASEAN+ 3(한·중·일) 국가들이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기능을 강화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
- 회원국들의 경제상황을 분석하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(AMRO)를 5월에 출범시키고, 처음 3년간 최고책임자는 중국이 1년, 일본이 2년씩 맡기로 합의
- 역내경제에 혼란이 발생할 경우, 신속하게 외화를 서로 융통해 주는 치앙마이·이니시어티브(CMI)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
-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, 위기 징후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선제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도 구축해 나가기로 함

## □ 일본기업전략

### ○ 엘피다, 25나노 D램개발 7월부터 양산

- 日엘피다가 세계 최고 수준인 25나노 공정 D램 제조기술을 개발했다고 2일 닛케이신문이 보도
- 닛케이는 엘피다가 7월부터 히로시마공장에서 25나노기술을 사용한 2기가 용량의 D램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보도 (생산효율이 30% 향상될 전망)
- 엘피다는 오는 7월, 25나노공정 2기가 D램 양산에 이어 연내에 4기가 제품도 출시할 방침
- 이에 대해, 삼성전자 간부는 엘피다 발표가 비현실적이라고 언급

### ○ 르네사스반도체 피해로 휴대폰·가전에 악영향

- 반도체 대표기업인 르네사스테크놀로지가 지진 피해로 생산이 중단되면서 자동차업계와 전자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닛케이신문이 4일 보도
- 르네사스는 6월15일 공장을 재가동시킬 예정이지만, 주력생산품인 마이크로컨트롤러를 본격 생산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여 반도체부족 현상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
- NTT도코모, 샤프, NEC 등 휴대폰 제조업체들도 르네사스의 부품공급 차질로 신제품 출시를 연기할 방침이며, 엘리베이터를 생산하고 있는 히타치제작소는 대형 건물에 사용되는 특수 엘리베이터 공급이 3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**경산성에서 발표한 '공급망에 대한 영향조사'와는 차이가 있음**

### ○ 신일본제철, 스미토모금속의 도요타 강판을 대체생산

- 신일본제철은 지진 피해를 당한 스미토모금속을 대신하여 도요타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강판의 대체생산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짐
- 신일본제철 관계자는 스미토모금속에서 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부품에 대해 도요타의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
- 신일본제철은 400~500개 품목을 나고야제철소에서 생산하여 도요타자동차에 납품하기 시작했으며 대체생산은 5월말까지 계속될 예정

## □ 보고서 리뷰

중국 광둥성 동관시(東莞市), 지진 피해 일본기업 긴급지원

- 동관시는 지진으로 생산 타격을 입은 일본계기업들이 중국으로 생산 거점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, 일본계기업에 대한 검역, 세관 등 수출입업무를 지원하는 특별대책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발표

\*동관시는 지진발생 다음 날인 12일부터 특별대책팀을 구성하여 일본계기업에 대한 수출입업무를 지원하고 있음

## □ 동관시의 지원 대책

## 1) 지진발생 다음 날 : 긴급대책팀 구성

- 긴급 프로젝트팀을 구성, 동관시에 진출한 일본계기업에게 안부 메일을 발송
    - 담당직원이 일본계기업을 1사씩 방문하여, 지진 영향이나 전망에 대해 히어링조사를 실시
- \*동관시에 소재한 일본계기업은 437사

## 2) 지진발생 1개월 후 : 동관시는 수출입업무와 생산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19항목의 특별조치 발표

- 일본 본사가 복구될 때까지 동관시에서 생산을 확대시키려는 일본기업에 대한 지원, 특히 생산 거점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심사·허가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대책 등을 실시

## 3) 335활동 강화

- 일본기업이 안심하고 동관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일본기업 본사를 방문하여, 투자환경에 대해 설명하고, 시정부에 대한 요망을 직접 청취하는 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강화

\* 335활동: 3개월에 한번, 3번째주에 일본 출장, 5일간 진출기업 본사를 방문하는 운동

## □ 시사점

- 중국은 일본기업의 투자 유치활동을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
  - 우리나라도 일본기업의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수동적인 대응에서 △한국진출 대기업에 대한 요망 조사, △진출 일본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 일상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

## 【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】

- (1) 『지진으로 큰 영향을 받은 간토지역의 소비자행동』 내각부, 4월29일  
\*출처:<http://www5.cao.go.jp/keizai3/shihyo/2011/0428/989.html>
- (2) 『공급망 寸斷을 어떻게 볼 것인가』 미즈호종합연구소, 4월29일  
\*출처:<http://www.mizuho-ri.co.jp/research/economics/pdf/japan-insight/NKI110428.pdf>
- (3) 『2011년 1-3월기 GDP속보』 제일생명경제연구소, 5월3일  
\*출처:[http://group.dai-ichi-life.co.jp/dlri/rashinban/pdf/et11\\_024.pdf](http://group.dai-ichi-life.co.jp/dlri/rashinban/pdf/et11_024.pdf)
- (4) 『환율 전망』 일본종합연구소, 5월3일  
\*출처:<http://www.jri.co.jp/MediaLibrary/file/report/exchange/pdf/5479.pdf>
- (5) 『사용후 가전제품으로부터 희토류 회수』 경제산업성, 5월3일  
\*출처:[http://www.meti.go.jp/committee/summary/0004564/report\\_001\\_00.pdf](http://www.meti.go.jp/committee/summary/0004564/report_001_00.pdf)
- (6) 『중소기업동우회 景況보고』 동우회협의회, 5월6일  
\*출처:[http://www.doyu.jp/research/dor/2011/dor\\_95.pdf](http://www.doyu.jp/research/dor/2011/dor_95.pdf)

## 【금주의 일정】

일 자	주 요 일 정
5월 2일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11년 제1차 추경예산 통과(대지진복구비용 등 4조153억엔)</li> <li>○ 일본-EU각료회의 개최(브뤼셀)</li> <li>○ 4월 신차판매 속보 발표(자동차연맹)</li> <li>○ 3월 근로통계 발표(후생노동성)</li> </ul>
5월 3일(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아시아개발은행 총회 개최(하노이)</li> </ul>
5월 4일(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개최(하노이)</li> <li>○ ASEAN+3 재무장관회의 개최(하노이)</li> </ul>
5월 5일(목)	<b>휴일</b>
5월 6일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4월 Monetary base 발표(일본은행)</li> <li>○ 4월美고용통계 발표</li> <li>* 7일(토) 부흥구상회의 개최, ASEAN정상회담 개최 등</li> </ul>